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과 삶을 내면화하는 교구 공동체의 해

성 조윤희 요셉 (1848-1866)

Cho Yunho

아버지 조화서와 함께 순교한 조윤희는 충청도 신창에서 태중 교우로 태어났다. 1864년 아버지를 따라 전주 지역의 교우촌인 성지동으로 이사하여 교우 처녀인 이 루치아와 혼인하였다. 1866년 12월 5일 아버지 조화서, 정원지, 이명서 등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에서 심문과 형벌을 예닐곱 차례 받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아버지가 순교한 지 열흘 지난 12월 23일 전주 숲정사에서 곤장 16대를 맞은 뒤 19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여, 할아버지 조 안드레아와 아버지 조화서 베드로에 이어 가문의 3대가 함께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102
(시편 144,15)



소장처 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피에라, 신앙의 꽃)」 성인화 · 약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제 1 독 시
회 답 송

스바 3,14-18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 2 독 시
복 음 환 호 송

필리 4,4-7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영 성 제 송

루카 3,10-18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종희
가브리엘 신부
교구 사회사목국장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 주일로 한국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과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자선을 실천하도록 권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루카 3,8)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에 대해 군중과 세리들과 군사들이 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루카 3,12)

첫째, 생필품(내가 가진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모든 복음서의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는 구체적이며 헌신적인 회개를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성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지역 자선 단체나 푸드뱅크에 음식이나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직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로마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유다, 사마리아인들 중 그들의 위임을 받아 각종 세금을 받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금 징수권을 남용하여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정부패를 자행

하기 일쑤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들이 사람들과 거래할 때 정직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정액만 징수하고 공평하게 처신함으로써 회개를 증명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와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정직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공정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세리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세리들처럼 부정축재를 자행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여 무력으로 돈을 강탈하거나 등치먹지 말고 봉급에 만족함으로써 부패한 사회를 정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직장가 가정에서 어떻게 권력을 다루고 있는지, 자신에게만 이로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루카 3,12)

우리는 이 질문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권력을 남용합니다. 우리가 덜 이기적이고, 덜 탐욕스럽고, 덜 권력을 남용할 때 빈곤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선 주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비와 정직과 공정으로 만든 사회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눔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의 성경 한국집



‘군중에게 세례를 주는 성 요한 세례자’,
니콜라 푸생 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루카 3,16).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전례 거행의 공통 표징 3 : 전례 안에서 ‘절’의 종류

김형민 안토니오 신부 / 교구 복음화연구소장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신교 신자들은 절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여기고 사람을 대상으로 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주교에서는 절을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예의 곧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허락됩니다.

우선 절의 의미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문인의 표현대로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겸손과 존중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좀 더 복음적인 가치로 이해한다면, 상대방 인격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이를 향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도 현존하고 계심을 믿고 몸을 숙여 인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변화가 온다고 말하는 이도 존재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인 절을 교회의 전례는 무릎 절(깊은 절), 머리를 숙이는 절, 몸을 숙이는 절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사 경본 총지침은 무릎 절 곧 오른쪽 무릎이 땅에 닿도록 꿇는 것을 전례의 가장 근본적인 흠숭의 자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74항 참조). 무릎 절은 고대 로마인들이 황제를 신적神의 존재로 공경하던 관습에서 기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교도적 의미가 사라지고 단순히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교나 교황에게 하는 인사에서 제대, 십자가, 성인 유해, 그리스도와 성인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인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1세기에 성체 신심이 발전하면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공경으로 성체 앞에서 이 자세를 취하였고 16세기에 미사 안에 들어와서 1570년 비오 5세 로마 미사 경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럽 교회에는 무릎 절의 전통이 남아있지만, 한국 교회는 무릎 절을 깊은 절 곧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동작으로 대신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례적으로 흠숭을 표현하는 깊이 허리를 굽히는 절(무릎 절)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께, 그리고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 때 하는 장엄한 십자가 경배부터 파스카 성야 시작까지 거룩한 십자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사 안에서 주례 사제는 세 번, 곧 축성된 빵을 거양한 다음, 축성된 포도주가 담긴 성작을 거양한 다음, 그리고 영성체하기 전에 깊은 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례를 거행하는 중이 아니라면 성체가 모셔진 감실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274항 참조).

로마 미사 경본에는 공경과 영예를 드리기 위한 절로 머리를 숙이는 절과 몸을 굽히는 절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절 곧 묵례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한꺼번에 부를 때,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축일이나 기념 미사에서 해당 성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게 됩니다. 몸을 굽히는 절은 사제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 제대 앞에서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을 깨끗이 하시어...’라고 기도할 때, 예물 준비 후에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하고 기도할 때, 신경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라는 구절을 외을 때와 부제가 복음을 선포하기에 앞서 강복을 청할 때 등에 몸을 숙이는 절을 합니다. 그 외에 사제는 축성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할 때 몸을 조금 굽힙니다(275항 참조).

이렇게 전례에서 이루어지는 절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성당 안에서는 성체와 성인들을 공경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의 바람을 겸손하게 드러내며, 회개의 표시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머리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절을 통해 주님 은총 안에 머무르는 미사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 전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산홍보실 메일(cjjubo@naver.com)로 질문해 주세요.
내용을 선정하여 주보를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웬 떡이야

차은량 카타리나 / 수필가, 교구 가톨릭문인회

더없이 고단하고 치열한 한해였습니다. 새해 첫 날 쓰기 시작한 감사일기는 1월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기를 쓸 만큼 감사할 게 뭐 그리 있을까 했지만 막상 쓰고 보니 감사할 일이 하루에도 열 가지는 족히 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일상을 확인시켜 주는 감사일기를 일년의 반도 아닌, 겨우 한달도 쓰지 못하고 책상 한쪽으로 밀어 놔습니다.

몇 년째 진행 중인 일본어 공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3월까지지는 그래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하는 공부도 좋지만, 이른 아침 강변 카페에 첫 손님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아 하는 공부도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러다 농사일이 바빠지면서 일본어책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2월에 시작한 ‘전신자 성경읽기(성경 읽고 문제 풀기)’도 고추를 따기 시작한 7월 말에 그쳤습니다. 건너뛰고 이어서 하면 될 것을 중단한 부분에 대한 미련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어쩌면 그리 더웠을까요. ‘덥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폭염과 가뭄, 불시에 쏟아지는 폭우로 지난 여름은 악몽 같았습니다. 참깨를 파종한 날 예보에도 없던 폭우가 쏟아져 두둑이 아닌 헛골에 참깨 싹이 올라와 갈아엎은 일도, 애써 수확한 고구마 두 트럭 분을 밭에다 내다 버린 일도 처음이었습니다. 먼저 캔 고구마 한 밭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지만 윗밭의 고구마는 수확해 선별까지 마친 것을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줄기를 잘라놓고 비를 맞으면 ‘물먹은 고구마’가 되어 줄기를 절단한 양쪽 끝이 서서히 시들고 변색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동안 맛있는 고구마로 정평이 났던 걸 생각하면 누가 알까 무섭고 창피해 내다 버리기 급급했습니다. 몇 번을 거듭 찌먹어 보고 맛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주변에 나누어주었습니다.

전쟁 같은 밭일이 마무리될 즈음 오래전 호의를

배운 일로 생각지 않은 구설을 들었을 때는 성당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지고 찾아온 성당에서 마음을 다치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공주 황새바위 순교지까지 34km, 7시간 반 거리의 도보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본당에서 출발해 마을과 논밭 사잇길을 한나절 걸어 호젓한 야산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 초순을 지난 하늘은 짙 소리가 날 듯 드뭇했고 굵어진 오솔길 양옆으로 햇살이 투영된 잡목숲은 마치 자기 생애 단 한 번인 양 찬란한 가을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 이제 웬 떡이야! 하는 탄성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엄숙해야 할 순교지로 향하면서 할 말이 아닌, 저급하기 짝이 없는 표현에 스스로도 당황한 말이었습니다.

벼랑 끝 헤매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손 모은 지 십수년, 시루 안의 콩나물처럼 받은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 열 가지보다 그렇지 않은 한 가지에 사로잡혀 불행해했던 걸 반성합니다. 일년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음에 분노하고 원망한 것 반성합니다. 나를 미워하며 겪었을 그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비 오기 전 날은 참깨 파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고구마는 줄기를 자른 날 반드시 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7시간 반, 다리가 후들거리게 아팠던 도보순례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하며 어루만져 주신, 은총의 길이었습니다.

감사일기를 다시 펼칩니다. 고단하고 치열했던 날들의 교훈을 쓰기 시작합니다.



「신앙 선조 이야기 ‘네 믿음이 장하다」 출판기념 감사미사

교구 가톨릭문인회(지도 _ 이태중 사도요한 신부)는 11월 27일(수) 배타성지에서 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의 주례로 「신앙 선조 이야기 ‘네 믿음이 장하다」 출판기념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네 믿음이 장하다’는 청주교구를 빛낸 신앙 선조 28명의 이야기를 교구 가톨릭문인회에서 소설, 전기문으로 집필한 책이다.



청소년사목자 연수

청소년사목국은 11월 21일(목)~22일(금) 교구 연수원에서 청소년사목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훌륭한 리더의 조건’에 관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방안을 함께 나누었다. 24개 본당에서 신부님과 수녀님 38명이 참석하였다.



교리교사 역량강화교육

청소년사목국은 11월 24일(주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교리교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역량강화교육은 교리교사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이번 교육에서는 ‘미사’에 대해 다루었다. 9개 본당에서 교구 내 교리교사 43명이 참석하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선주일 담화를
볼 수 있습니다.

CBCK 제41회 자선 주일 담화(발췌)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희망이신 하느님과 함께,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작은 희망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시다. 그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시다.

교구청

2024 성가정 축복장 수여 대상 가정 추천

1. 이웃 평판이 좋고 선교에 모범이 되는 가정
 2. 월 1회이상(주회,매일)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평일 미사에 참석하는 가정
 3. 하느님의 뜻에 따라 3자녀 이상 둔 가정
 4. 3대(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
 5. 성소자(사제, 수도자, 신학생)가 있는 가정
 6. 월 1회 이상 가족 봉사활동/성지순례/피정 추천 _ 위 3가지 이상 조건 해당 시 본당 추천
- 마감 _ 12.17.화까지 210-1733 가정사목국
※2025 새해감사미사 (구)신년교례미사에서 수여

제72차 선택 주말

일시 _ 2.7.금.18:30-9.주일.17:00
장소 _ 교구 연수원
대상 _ 20대 이상 미혼 남성
접수 _ 12.29까지 선착순 마감
문의 _ 220-1703 청소년사목국
010-4117-5659 선택대표
※cjyc.or.kr 참고하여 신청

미사·피정

청주 생명수호미사

일시 _ 12.16.월.19:30(19:00부터 묵주기도)
장소 _ 사천동 성당
※임신부와 태아 축복예식 있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전 신자 대립피정

일시 _ 12.19.목.09:00-12:30
장소 _ 서운동 성당
강사 _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봉암성지 철야기도회

일시 _ 12.20.금.19:00-21.토.02:00
장소 _ 맹동 성당
문의 _ 883-0161, 010-5215-8607

감사와 청원의 10주간 철야작정기도

일시 _ 12.20까지 매주 금.21:00-토.03:00
장소 _ 초정 성령회관 ※미사, 성시간 있음
내용 _ 묵주기도, 기도, 강의, 안수, 찬양
문의 _ 010-5482-6744 회장

초정성령회관 2박 3일 송년대피정

일시 _ 12.27.금.20:00-29.주일.14:00
회비 _ 2만원(청소년 무료)
강사 _ 양창우·박효철 신부, 김완식 요셉
문의 _ 213-9103, 010-5482-6744
※버스 출발 _ 조치원역 18:20,
청주고속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40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 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 예언서 II _ 12.20-22
성경완독 _ 1.2-10, 2.7-15
문의 _ 010-3340-0201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한라산산행 _ 1.11-13, 1.16-18, 1.20-22,
1.24-26, 2.1-3, 2.7-9
자연순례 _ 3.1-3, 3.8-10, 3.18-20
운영 _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내용 _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접수 _ 064-796-4182, 02-773-1455

제주 면형의 집 피정

한라산산행 _ 1.17-19, 1.23-25, 2.8-10
2.14-16, 2.22-24
성지순례(추자도포함) _ 3.1-4, 3.9-12
운영 _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내용 _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 하는 산들평화순례
접수 _ 02-773-1463,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_ 12.21-22, 2.14-15
8박 9일 _ 12.26-1.3, 1.6-14
4박 5일 _ 2.17-21(성직자/일반)
3박 4일 _ 2.26-3.1, 3.27-30
장소 _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_ 031-953-6932, 010-4906-572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일시 _ 매주 화.20:00-21:20
대상 _ 20-45세 미혼 여성
문의 _ 010-9353-1773

교육·모집

내수 본당 사무장 모집

자격 _ 세례 5년이상 워드, 엑셀 가능한
50대 이상 남성
문의 _ 216-2831
onestone870@cdcj.or.kr

교구 연극단 단원 모집

대상 _ 교구 내 모든 신자
신청 _ cyh0279@hanmail.net 자기소개서 전송
(성명,세례명,나이,전화번호,본당,참가동기)
문의 _ 010-9406-0202 단장

말씀봉사자 월교육

일시 _ 12.18.수.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상 _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지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분야 _ 공공시설관리, 보육시설봉사, 노노케어
방법 _ 방문접수(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
마감 _ 12.27.금
문의 _ 288-3060 청주상당노인복지관

2025년도 안젤루스 도미니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자격 _ 초 2-5학년 신자(2024년 기준)
오디션 _ 1.11.토.10:00 내덕동 성당 성음악원 연습실

소화잘되는내과

간담검진, 위·대장 내시경, 소화기내시경전문의 2인 진료
태양빌딩 2층(가경동 홀플러스와 모태인산부인과 사이)
원장 이승호 바오로
이희승 | 716-2885

가톨릭 여행사

3월 17일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월 19일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대표 최도형 야교보 | 010-5235-3533

마카엘여행사 성지순례 / 제주(추자도) 6명부터

2/6 스페인,포르투갈 12일, 4/22 성모님발현지 4국 12일
5/19 스페인,포르투갈 12일, 6/2 동유럽 5국 11일
정상훈 마카엘
www.michaeltour.co.kr | 010-8650-9690

강남호랑이마취통증의학과

경추·요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어깨·무릎 관절 통증,
특수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재활치료
박준범 라자로
장민정 안 나 | 02-2281-7588
서울 금남시장 맞은편

벨톤 보청기 충주지사

청각복지카드 소유자 (무료 출장, 상담)
10만원대 구입 가능
원장 주영호 요셉
010-8335-0516 | 857-9494

경인구 한의원

공진단 / 경옥고 / 보약 / 척추관절 / 비만 / 성장
척약 의료보험(오창 국민은행건물 4F)
원장 경인구 토마스아퀴나스 | 241-0007

내용 _ 자유곡1(악보지참), 시창 청음,
음역테스트, 부모면접
마감 _ 1.10.금.18:00
접수 _ 010-8624-0125 지취사 ※문자 접수만 가능
가르멜재속회 지원자 모집
대상 _ 세례 3년이상 견진받은 55세 이하
문의 _ 010-4411-3994 청주
010-9026-3873 충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규직 조리사 모집
자격 _ 집단급식 조리가능자(경험자 우대)
문의 _ 275-7411, cjjb.kr

은혜의 집(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_ 269-2606 ※주간/교대 각1명

청주성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서류 _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문의 _ 214-8501 ※주간/야간 00명

음성꽃동네노인요양원 구원의 집 직원 모집
분야 _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문의 _ 879-0225 ※기숙사 사용 가능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_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
(사회복지, 상담심리전공)

원서접수 _ 12.31.화-1.3.금
문의 _ 270-0100, 0119

**2025학년도 노비파스 음악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상 _ 고등학교 신입생, 중3 전입생
내용 _ 무상교육(수업료, 기숙사비 전액무료)
음악중점 교육과정 운영
※novitas-s.goegp.kr 참조

안내·기타

가톨릭청소년센터 고해성사
※12월은 없습니다.

교구 전례꽃꽃이회 회의
일시 _ 12.16.월.19:30
장소 _ 교구청

교구 평협월례회의
일시 _ 12.18.수.19:00
장소 _ 교구청

여성연합회
일시 _ 12.19.목.19:00
장소 _ 교구청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루도비코형제회
일시 _ 12.21.토.13: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공소사도직회
일시 _ 12.21.토.15:00
장소 _ 교구청

재속프란치스코회 과산루게치오형제회
일시 _ 12.22.주일.13:00
장소 _ 과산 성당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뎃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출판·광고·성경필사용지 제작·판매

성직자·수도자 12월 고해성사
일시 _ 12.16.월/12.23.월.13:30-15:00
장소 _ 최양업관(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321)
주례 _ 함제도 신부(메리놀외방전교회)
성직자·수도자·평신도 고해성사
일시 _ 매주 월.14:00-16:00(5주 제외)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2025년 1월부터 시행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안내
일시 _ 1.3.금-5.주일(2박3일)
장소 _ 양업고등학교
대상 _ 현재 중학교 1,2학년
접수 _ 12.17.화.10:00부터
www.yangeob.hs.kr 선착순
회비 _ 15만원(접수 문자수신 후 계좌이체)
문의 _ 260-5076

12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센터 프로그램
분야 _ 이콘, 전례초 조각, 성가
캘리그래피(기초/심화.자격증반)
전문영성상담(유재선 신부), 성지순례
문의 _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수도회 성소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2.21.토.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2.21.토.14:00	가톨릭청소년센터	010-9353-1773

(민진배) 진안과 의원

백내장, 녹내장, 망막, 사시, 안성형, 드림렌즈
육거리와 꽃다리 중간. 한성한의원 건물 1,2층
원장/전문의 민진배 과 파 엘
박계연 라파엘라 | **222-7582**

가톨릭병원 정형외과

“관절 및 척추질환 치료병원”
사직동 사거리 교보생명 맞은 편
김지목 레 오
김지영 라파엘라 | **274-4401~2**

2025 회년 성지순례

산티아고 도보순례(3월 18일-29일) 495만원
40차 로마 세계청년대회(7월 28일-8월 3일)
박경동 마리노
마 샘 동 행 | **010-9427-1119**

정관장 사창점(중앙여고 버스정류장 앞)

홍삼제품, 동인비 화장품 전문매장, 선물세트
전화주문, 전국택배, 시내 배달서비스
류인미 아베스
조경철 마리아 | **266-2304**
010-7654-7603

제주, 전국167곳 36만원 /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도쿄, 오사카 3박4일 120만원
과달루페성모님(멕시코)&마추피추(페루) 10박12일 720만원
마르코 투어
오완수 마오로 | **010-4239-1929**

숙성새우젓·각종 발효액젓·신안탈수햇소금

[강경늘봄것길] 총구역 기금 마련 상담환영/각종 새우젓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토하젓, 멍게젓, 친환경 우렁
대표 김형근 루가 | 신안탈수햇소금 20kg
010-7722-7711 | 택배비 포함 4만 3천원